

치밀한 여성美 불국사... 투박한 남성美 부석사

석단(1) - 좋은 사례

석단은 건물을 앉히기 위해 경사지를 평평한 공간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생기는 수직면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미학적으로 장식하기 위해 축조한 석조구조물이다. 산간 경사지에 주로 입지한 한국 사찰에서 석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관요소이며 두드러진 장엄물로 취급돼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되어왔다. 특히 석단은 그 재료나 축조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경관성을 보이고 수직적 조형물로 기능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식도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물이었다.

한국사찰의 석단은 주로 자연석을 사용한 막돌 허튼층 쌓기방식으로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연환경에 맞도록 절 주변 돌들을 주위 특별한 격식 없이 쌓아올렸기 때문에 스님들과 신도들의 울력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석단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석단을 구성하는 돌의 크기도 크지 않았고 석단의 높이 또한 높지 않았다. 더구나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석단을 축조할 곳도 많지 않았다. 그야말로 자연에 순응하며, 어쩔 수 없이 석단을 축조해야 할 곳에만 석단을 쌓았던 것이다. 한국사찰의 석단은 이렇게 소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한국인의 자연친화적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친근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사찰의 석단이 소박하고 평범한 것만은 아니었다. 몇몇 사찰의 석단은 아름답고, 장대하며, 독특한 조형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시대의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석단은 재료의 사용이나, 축적기법 그리고 디자인 형태가 일반적인 사찰의 석단들과는 판이한 형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불국사 부석사 화엄사 해인사 봉선사 용주사 석단이 대표적이다.

불국사 석단은 극락전 하부와 대웅전 하부를 연결하는 비교적 긴 선적 구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이 석단이 성의 공간과 속의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석단에 놓인 청운·백운교와 연화·철보교가 속의 공간과 성의 공간을 연결하는 다리인 셈이다. 구조적으로 속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가시되는 것이 석단이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불국사 석단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며 치밀한 조형성을 보인다.

불국사 석단의 조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극락전 하부



불국사 석단(극락전 하부)은 긴돌을 다듬어 세련미를 표현했다.



화엄사 석단은 조화로운 이미지가 특징이다.



부석사 법고루 위 낮은 석단



부석사 안양루 전면의 높은 석단



불국사 석단(대웅전 하부)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 하부석단



봉선사 장대석 석단

의 석단과 대웅전 하부의 석단이 형식적으로 대조를 이루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준다. 이것은 극락세계와 연화세계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암시하는 디자인적 표현으로 보인다. 한 영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디자인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불국사 석단의 상체를 보면, 극락전 하부의 석단은 긴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목가구식으로 짜 맞추고 돌로 만든 격자형 틀 사이에 크고 작은 돌들을 박아 넣어 세련미를 보이도록 했다. 특히 격자형으로 짜 맞추고 긴 돌의 비례, 질서 있게 튀어나온 철차의 조형성은 8세기 신라의 월등한 디자인수준을 엿보게 한다. 한편, 대웅전 하부의 석단을 보면, 상부는 극락전 하부석단의 상체를 따랐다. 그러나 석단의 하부는 큰 돌을 자유분방하게 쌓으면서 돌의 생김새에 맞도록 상부의 다듬은 돌 밑부분에 그랭이질을 했다. 못생긴 막돌과 그랭이질한 다듬은 돌 사이의 조화는 가히 일품이다.

불국사 석단의 멋스러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사찰서 석단은 중요 경관요소 소박함부터 화려함까지 다양각색 불국사 부석사 화엄사 등이 대표적

으로 지정된 석굴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세련되고 수준 높은 석조기술을 충분히 소화했기에 비로소 그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모로 볼 때 불국사 대웅전 하부석단은 돌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작품이다. 달인의 경지에 든 작가만이 해낼 수 있는 디자인작업, 바로 그것이 불국사 석단인 것이다.

부석사 석단은 도합 아홉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무량수경에서 설하는 삼배구품설과 대응시켜 부석사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라고 생각한다. 부석사의 석단은 나름대로 독특한 조형성을 보인다. 그러한 조형성은 재료와 축조기법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석단의 상체를 살펴보면, 범종루 위 낮은 석단은 자연석을 크기가 서로 다른 네모난 형태로 잘 다듬

어 쌓아 비교적 정연한 미를 연출했다. 안양루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높은 석단은 자연석을 생김 그대로 첩첩이 쌓아 올리고 돌 틈새에 작은 돌들을 끼워 넣어 이를 맞추고 있다.

부석사 석단에서는 불국사 석단과 같이 세련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깊은 산에 잘 어울리도록 자연석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투박하게 쌓아올려 주변과 잘 어울리도록 했다. 이러한 디자인 기법은 다른 사찰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것으로 부석사는 다른 사찰들과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국사 석단과 부석사 석단을 비교해 차이를 이야기 한다. 불국사 석단이 치밀한 축조방식을 가진 여성적 아름다움을 보인다면 부석사 석단은 투박한 축조방식을 가진 남성적 웅장함과 강건함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화엄사 역시 석단의 독특한 조형성을 볼 수 있다.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 하부 석단은 큰 돌을 장대석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는데, 웅장하고 조화로운 이미지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웅장한 이미지는 석단을

불국사 석단, 최고수준 세련된 작품 부석사는 자연과 조화된 투박함 백미 화엄사·해인사는 웅장함이 돋보여

구성하는 돌의 크기는 물론 석단의 높이와 길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조화로운 이미지는 건물이나 공간과의 상관성을 통해서 느껴진다. 또한 돌의 규격을 달리해 변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축조방식은 해인사 대적광전 하부 석단에서도 볼 수 있다. 해인사나 화엄사는 돌 다 대표적인 화엄사찰이었고 창건이나 중창에 왕실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석단은 국가적인 규모의 큰 불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봉선사와 용주사 석단은 장대석을 다듬어 축조했다. 조선시대에는 왕가의 공간에서만 다듬은 돌(숙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장

대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왕궁이나 왕실과 관련된 곳이었다. 봉선사와 용주사는 능침수호사찰이었기 때문에 장대석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능침수호사찰이나 왕실 원찰에 조성된 석단들은 왕실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축조됐을 것이다.

봉선사 석단을 보면 장대석으로 3~4단을 쌓아올리고 그 위에 갑석을 얹어 완성했다. 경복궁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 화계에 도입한 석단과 동일한 수법이다. 용주사의 석단 역시 잘 다듬은 장대석을 2~3단 쌓아 올려 경사면을 안정시켰는데, 봉선사와 달리 갑석을 얹지는 않았다.

이렇게 장대석으로 쌓은 석단은 매우 정연한 구조를 보여 축조형식을 통해 질서와 통일감 같은 디자인 원리를 읽을 수 있다.

장대석으로 석단을 쌓은 사찰로는 봉은사, 보광사, 흥국사 등 여러 곳이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신선한발상, 새로운 접근, 알기 쉬운 해설!
문자 해석을 넘어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현실적인 해설!



집착을 버려라
물질과 과학의 노예가 되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현대인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주는 책.
히로 사치야 저, 강민 옮김 | 국판변형 | 270쪽 | 값 10,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11월 19일(토) 10:00~18:0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초기불교와 인도·티베트 불교, 선불교, 서양철학과 현대의학 등 각 분야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찰한 책.
정준영·안성두·황금연·박찬국·우희중 저 | 348쪽 | 18,000원

밝은 사람들 출서

